

<꽃비가 내리면> 독서 활동지



이 책은요...

자연 속에서 누렸던 경험, 온전히 사랑받은 기쁨, 만남과 헤어짐 같은 아름다운 추억을 표현한 그림책입니다.

이 책을 통해...

추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과
우리가 몹시 소중한 존재로 자라왔음을 깨닫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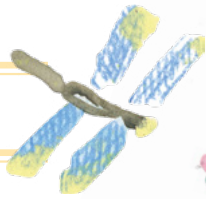
주제어

성장, 존재, 추억, 관계

누리과정

사회관계 - 나를 알고 존중하기 | 더불어 생활하기

책을 읽기 전에



• 이 책의 제목은 <꽃비가 내리면>이에요.

'꽃비'란 무엇일까요? 이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 보아요.





- 아이는 할머니와 여러 경험을 함께해요.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적어 보아요.



- 할머니는 자주 “오메!”라고 말해요.

이 말은 여러 상황에서 쓰였는데, 각각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지 써 보아요.

집에 온 아이를 맞이하면서: “오메, 우리 아가.”



자기가 보낸 편지를 받았느냐는 아이의 물음에: “오메, 맨날 봤지.”



이웃에게 떡을 나누며 손녀 자랑을 할 때: “오메, 예쁘지?”







- 여러분이 가진 추억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일을 그림일기로 써 보아요.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rown border, intended for a drawing or illustration.Fiv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ext.